



동요 속 동물들의 진실 혹은 오해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l@hanmail.net



해마다 봄철이면 불곰 우리 앞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왜냐하면 그 즈음이 어린이들 소풍 철이자 연중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때이며 동시에 특히 불곰새끼들이 한창 재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불곰들은 어김없이 1월 중순경에 새끼를 낳아서 4월이면 시중의 곰 인형크기만한 3~4마리의 새끼들을 데리고 나온다. 곰들은 건국신화에서 우리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인간과 하는 행동이 무척 닮았다. 아기 곰들의 행동은 좀 장난이 심한 사내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뒹굴고 노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 감정이입이 되어 더욱 친근감이 느껴질 수밖에.

그런데 그 곰들 앞에서 사람들이 귀여움과 대견함에 겨워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다. 그 노래는 아침마다 회진을 돌 때면 한 두 차례 정도는 반드시 듣게 된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곰 아빠곰 아기곰 아빠곰은 똥똥해 엄마곰은 날씬해 아기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대충 가사가 이 정도이다. 이 흥겨운 노래에 흠을 잡기 그렇지만 사실 이

동요내용 중에는 동물생태상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일단 각자의 크기를 묘사한 부분은 거의 정확하다. 아빠곰은 엄마곰의 두배인데다, 새끼를 가진 엄마곰은 또한 매우 말라있어 날씬하다고 할 수 있다. 새끼들에게 동면중에 많은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끼 곰이 귀여운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야생에서나 동물원에서 진실은 이 동요와 약간 차이가 있다.

곰은 주로 단독생활을 하는 방랑자에 가까운 동물이다. 그러다 수컷들은 암컷들과의 여름철 허니문 기간에만 잠깐 같이 생활을 하다 곧바로 헤어진다. 암컷들은 혼자 새끼를 낳고 키운다. 만일 수컷이 함께라면 새끼들이 수컷에게 희생당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동물원에서도 새끼가 낳을 때가 되면 함께 지내던 암수를 분리해 놓는 게 원칙이다. 그 후에도 어린 새끼들이 커가는 2~3년 동안에는 수컷과는 거리를 두는 게 상례이다. 그러니 엄마곰 아기곰까지는 좋지만 아빠곰은 아쉽게도 빠져줘야 하는 게 곰 세계의 법칙이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혹시 이 노래 속 소를 젓소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동물을 좀 안다는 나 역시 별 생각 없이 당연히 젓소를 연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안 사실인데 여기에 나온 얼룩소는 젓소가 아닌 우리의 고유소인 ‘취소’라고 한다. 취소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보다 덩치가 두 배는 더 크고 검은 바탕 털에 얼룩얼룩한 갈색 무늬를 가진 우람한 소이다. 현재 몇 마리 안 남은 이 취소는 일부 독지가들에 의해 명맥을 잇고는 있지만 거의 멸종 상태이다. 작사가(박목월 1930)가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엔 젓소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괜히 외국소를 보고 이 노래를 지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은연중에 우리의 고유종에 대한 역사적 기록임과 동시에 취소를 아는 이들에게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찌면 우리의 잊혀져가는 슬픈 동물이야기이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보아서 밤새도록 하얗게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이 노래는 밤새우는 개구리의 울음을 풍자한 동요이다. 아마 작사는 예전의 그 많던 개구리 소리가 모든 개구리가 우는 소리로 안 모양이지만 그건 진실과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수컷만 울기 때문이다. 그것도 붙여이나 아래의 울음주머니를 통해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리 목청을 상할 염려도 없다. 더구나 3대가 노래방도 아니고 밤새도록 같이 모여 합창하지도 않는다. 개구리는 알일 때부터 오직 자기 혼자서 살아야한다. 개구리는 만화 ‘개구리 소년 왕눈이’처럼 혼자서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게 거의 모든 양서류들의 힘겨운 일생이다. 단지 살기 좋은 장소인 물 눈에 여러 마리가 모여살기 때문에 이런 독창들이 쌓인 합창이 가능한 것이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밤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이걸 노래는 아니고 게임송에 가까운데 여우는 웬만해선 양서류나 파충류는 잡아먹지 않는다. 정 배고프

면 과일 같은 식물성 먹이도 좋아하는 게 여우이다. 이 노래는 아마도 독 개구리에 대해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여우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선 무당개구리 같은 독 개구리를 잡아먹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걸 보고 사람이라 직접적으로 칭하기 뉘해서 괜한 여우를 빌려와 표현한 노래가 아닐지...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곱고 고은 땡기도..’ 이 노래는 아마 설날에 입는 새 옷인 설빔과 관련된 노래인 것 같다. 어려운 시절 오직 설날에만 새 옷을 갈아입고 으쓱해서 동네를 괜시리 싸대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련하다. 까치는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초겨울까지는 모든 깃갈이를 마치고 번쩍번쩍하고 두터운 겨울깃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다 초봄이 되면 겨우내 묵은 털을 뽑아서 등지의 재료를 삼는다. 그러니 우리네 설날에는 이미 까치들은 설빔으로 단장한 상태이고 우리는 설날에야 비로소 설빔을 입는다. 그러니 까치설날은 이미 지나간 어제이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다. 옷을 입어야 하는 별거송이 인간과 이미 옷을 입고 태어난 동물과의 차이도 드러난다.



‘부엉, 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춤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웅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나 밤의 사냥꾼인 부엉이는 결코 춤다고는 울지 않는다. 정 몸이 아파 추우면 약함이 드러날까봐 아마

울지도 않을 것이다.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음 여기서도 오류 발견, 산토끼는 밤에 돌아다니는 야행성 동물인걸 뭐. 몇 가지 동요만 살펴보았는데 많은 동물학적 오류가 보인다. 물론 이솝우화를 비롯한 동화책에선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동요는 동요이고 우화는 우화 일 뿐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습관적인 영향이 꽤 심각한 정도로 미칠 수도 있다. 즉 진실이 묻히고 비진실이 진실처럼 되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동요들에 진실까지 넣는다면 바로 생태학습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동요를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제 부엉이, 산토끼, 여우 같은 빈약한 동물 소재마저도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져 영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다. fin~